

# 경남도, 지역 원전기업 튀르키예 시장진출 발판 마련

시장개척단, 오늘부터 현지 활동  
NDK 절차 공유,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기술 정보 교류 등 업무협약

경남도는 경남 원전 기업의 튀르키예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5 경남도-남동발전 협력 원전·에너지기업 튀르키예 시장개척단'이 21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남 원전 기업을 비롯해 한국원전 수출산업협회, 경남테크노파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에너지기업이 참가하는 시장개척단은 ▲ 튀르키예 원전·전력 시장 정보 공유 ▲ 경남 원전 산업 경쟁력 홍보 ▲ 참가기업과 현지 기업 간 1:1 수출상담 ▲ 튀르키예 원전 기업·발전소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오전에는 튀르키예 정부·공공기관, 현지 기업 40개 사를 초청해 양국의 원전·발전 시장 현황과 튀르키예 원자력 규제위원회(NDK)의 인증



경남도청.

/경남도

절차 등을 공유한다. 같은 날 오후부터 22일까지는 기업 소개 자료와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4일에는 앙카라상공회의소에서 경남테크노파크와 앙카라상공회의소 간 양국 원전 산업 기술 정보 교류, 국제 전시회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현지 원전 기업인 TUNAS에도 찾아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 등 양국 간 원전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정이다.

25일에는 '국제 에너지 및 환경 전시회(International Energy and Environment 2025)'에 참가해 튀르키예·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기술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2050년까지 총 20GW 규모의 원전 설비 확보를 목표로 현재 아쿠유(Akkuyu) 원전 1~4호기 건설 중이며 2028년까지 차례대로 가동할 계획이다. 시베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에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

대 5000MW 규모의 SMR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척단은 국내 에너지 기업이 동행하도록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기획해, 원전 사업 확대와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추진 중인 튀르키예 시장에 경남 원전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도정 핵심 과제인 '원전 산업 정상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경남 원전 기업 수출 첫 걸음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인도와 이집트 방문을 지원해 총 140만 불 규모의 기자재 공급 협약 체결, 168건의 상담을 통해 약 4115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튀르키예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원전 중소기업이 글로벌 제조 강소기업으로 도약해 독자 수출을 통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전남도

#### 행락철 맞아 '남도한바퀴' 인기

전남지역 매력있는 관광명소 곳곳을 합리적 가격에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봄을 맞아 남도의 섬과 바다, 아름다운 봄꽃 정취를 만끽할 다양한 테마의 21개 코스를 오는 5월 말까지 운행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행상품을 1만 2900~2만 7900원 사이의 합리적 가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남도 바다와 봄꽃 강진·완도 치유여행, 흥매화 향기 머무는 신안·무안여행, 벚꽃 흠날리는 섬진강 구례여행, 나만 알고 싶은 비밀정원 고흥 속섬여행 코스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한바퀴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도 쉽게 이용하도록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광주승정역에서 출발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도

#### 이재민에 임시주택 211동 공급

경북도가 이재민 임시주택으로 '경북형 모듈러 주택' 211동을 공급하기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모듈러 주택'은 기존의 이재민 임시주택과 달리 층층이 쌓거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도 쉬운 '신개념 이재민 임시주택'이다.

도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에 18동, 의성에 42동, 청송에 20동, 영양에 41동, 영덕에 90동 등 모두 211동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울산시, '베트남 해외사절단' 파견

오늘부터 4박6일간 일정 소화  
자매도시 칸호아성 친선 방문  
조선업 기술인력 부족 해소 박차

울산시는 안호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인 칸호아성 친선 방문과 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른 현장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양국 간 우호 협력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해외사절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울산시 자매도시인 칸호아성 청사를 찾아 응우옌 쩌우안 인민위원장과 우호 협력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에 대해 환담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에이치디(HD)

현대베트남조선과 세진베트남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현지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1시에는 주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환담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안호대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의 산업 현황과 특성을 소개하고, 현지 인력 양성 센터 운영을 통한 인적 교류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25일 오전 10시에는 응우옌 성에 있는 한베산업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조선 용접 숙련 인재 양성 교육 수료식에 참석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2월 초 입교 후 3개월간 맞춤형 용접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받아온 조선 용접 교육생 5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 “다채로운 공연 가득한 ‘목포해상W쇼’”

오는 26일 평화광장 해상무대서 개최

'2025 목포해상W쇼'가 한층 더 다채로운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목포시는 목포해상W쇼 개막공연인 오는 26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광·스포츠 도시로서의 활기를 보여줄 역동적인 무대공연과 함께 더욱 화려해진 불꽃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첫 공연은 힘찬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목포시립합창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낭만 봄 바다를 노래하다' 무대를 통해 낭만향구 목포의 감성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그려낼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2025 목포해상W쇼' 홍보 포스터. /목포시

이어지는 본공연에는 '롤린(Rollin)', '운전만 해' 등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브브걸'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축제' 선봬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한다.

북항 친수공원, 광복로, 범어사, 용호별빛공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조선통신사역사관 등 부산 전역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함께 이어 갈 내일'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행렬 재현행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광복로와 북항 친수공원에서 옛 사절단의 행렬을 생생하게 재현할 예정이다.

특히 1부두~북항 친수공원 구간은

시민 500여 명이 참가해 과거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와 현재 국제 여객선의 출항지를 서로 잇는다는 상징성과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고자 했다.

9년 만에 축제 한일 거리 공연에 참가하는 일본의 '쿠로사키 기온야마가사'와 조선통신사 테마 '드론 아트쇼'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렬 재현에서 정사(正使) 역은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철로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고(故) 이수현 씨의 어머니, 신윤찬 LSH아시아 장학회 명예회장이 맡아 한일 평화의 의미를 담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시민과 함께 공공디자인 개선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공공디자인 리부팅(rebooting) 탐험'을 주제로 '2025년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7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부산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최고로 대접받는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부산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물로, 지역 내 기조성된 공공공간 개선(redesign)을 목표로 한다. ▲주변

사이트(site)와 소통 가능한 연결된 디자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범용 디자인으로 작품 내 부산 실제 공공공간 전후 디자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된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일반부와 학생부,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활용성 ▲심미성 ▲상징성이다. 일반부는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을, 학생부는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을 선정해 총 135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기장군

####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펼쳐

기장군은 지역 관광 명소 발굴과 홍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기장군과 사진에 관심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대구시

#### 대구시장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자 대구시는 선관위에 '궐위 상황 통보' 문서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궐위 상태가 보궐 선거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오는 10월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경우 남은 임기 기간이 8개월로 매우 짧은 점, 선거 관리 비용에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결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